

# 개 회 사

'24. 3. 18.(월) 10: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개회사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며,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Digital Finance in ASEAN”이라는 주제로,  
OECD와 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라운드테이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 멀리서 참석해주신  
OECD 카르미네 디 노이아 금융기업국장님과,  
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님,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들을 비롯해,  
아세안 정부와 관련 업계, 학계에서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 II .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의 변화

---

먼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 산업의 변화 양상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시장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60%(약 3.8억명)를 차지하는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빠르게 디지털 기술을 흡수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작년에 약 2,18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구글·베인앤컴퍼니 등(2023)

아세안 시장에서 간편결제·송금, 자금중개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CBDC, 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거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AI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는데,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금융업은 생성형 AI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두 번째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1위: 첨단 기술산업)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은  
금융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하며,  
금융 분야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 금융시장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하기 위해  
IMF, FSB 등 국제사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해킹, 금융정보의 유출 등  
금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AI 활용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거래의 초국경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특히, 신흥 시장인 아세안 지역과 협력하고,  
디지털 금융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라운드테이블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 **Ⅲ. 한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 방향**

---

다음으로, 오늘부터 이틀간의 세션을 통해 다루어지겠지만,  
한국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① 첫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IT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위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약 300여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금융정보 조회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19.12월)을 도입하여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고, 개인별 금융데이터 관리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이데이터’를 시행(22.1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둘째,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규율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는 각 국가마다 다르고, 아직 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금세탁 방지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고, 작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CBDC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AI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5大\*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AI 활용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여신심사, 이상거래탐지, 챗봇, 맞춤형 상품추천, 로보어드바이저

### ③ 셋째,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합니다.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한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 보안체계 역시 기술과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위기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때문에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원력(Cyber Resilience)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정보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 IV. 맺음 말씀

---

오늘부터 진행되는  
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 그리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  
예컨대, 디지털 자산과 금융보안, AI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가는 만큼,  
최신 금융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의 협력은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각국의 업계와 당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각자의 목표와 방향성을 더 폭넓게 이해하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